

##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느니라.”*

*창세기 1:27*

철학자들은 오늘날의 인간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진보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진화가 우리를 이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주장은, 과학자들이 계산에 의해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 존재해 왔으며 세대마다 발전해 왔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진보해 왔으므로, 그들은 인류가 이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결론 짓는다. 과연 이 철학이 옳은가?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단순한 철학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자”라고 초대하셨으며, 그분의 지혜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편 122:1

우리는 이 정보의 원천인 성경을 통해, 인간이 “땅에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음을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15:47; 창세기 2:7).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거나 주입하심으로써, “사람은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 창세기 1장( )에 나오는 이 간결한 인간 창조 묘사에는,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진화하거나 덜 복잡한 종류가 더 복잡한 존재가 된다는 암시는 조금도 없다. 창세기 1장에서 읽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종을 별개이며 구별되는 생명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준비하기 위한 각 단계가 끝나고, 식물과 물고기, 새, 땅의 생물들이 각각 창조된 후,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10, 21, 25, 31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된 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이 복수형으로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이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 모두가 여러 면에서 그분과 매우 유사할 것임을 의미했음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어로 “형상”과 “모습”이라는 단어는 닮음이나 본보기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완벽한 인간인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육체적인 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훨씬 우월한 존재, 즉 영적인 존재이시며, 인간은 단지 땅에서 나온 육체적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닮음, 즉 형상은 인간의 추리 능력, 기억력, 추상적 및 직관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능력,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지적·미적 자질을 소유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인 아담에게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신과 같은 양심의 속성이 주어졌다. 그는 선택의 능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했을 것이며, 우리의 행동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개개인의 성품을 발전시킬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 아담은 죄를 선택했다

아담, 그 영광스러운 최초의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은 모두 그의 안녕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순종하면 살 것이요, 하나님의 공정한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창세기 2:15-17). 창조주의 지시는 매우 간단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아담의 책임은 그 자신의 선택의 자유에 달려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가 완전함에서 타락한 결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온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유산으로

인해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다. 시편 51:5;  
로마서 5:12

죄와 죽음의 통치는 계속되어 왔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날 때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될 구속자, 구세주, 곧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히브리서 2:9). 의로운 심판( )에 따른 죽음의 선고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조치는 자유로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로마서 5:15-18

우리의 첫 조상들이 죄에 빠진 결과, 그리고 그 이후 수세기에 걸쳐,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식별하게 했던 그 특성들은 전 인류 중에서 비교적 소수에게서만 뚜렷한 정도로 발견되어 왔다. 실제로, 어떤 고귀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는 성품에서 비롯된 그러한 은혜를 기르려고 노력해 왔으나, 다른 이들은 단지 신성함의 겉모습만을 흉내 냈을 뿐이다. 이러한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쾌한 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첫 조상들을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신 진정한 성품의 순수함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참된 은혜가 부족한 자들과는 함께 일하실 수 없으므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비와 사랑의 자질을 보여준 인류 중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시대를 통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생애의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고귀한 자질들을 보여준, 그 은혜를 입은 이들 중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교훈

나중 해에 솔로몬은 자신의 선택의 자유로 인해 수많은 아내들의 요구에 휘둘리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이전에 거룩한 선지자 나단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던 사려 깊음, 통치 능력,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듯했습니다.

다윗이 늙어 통치하기에 너무 쇠약해지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스무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우리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아들을 둔 아버지라면 누구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염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아들들이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얻고, 그분과 함께 바르게 행하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

역대기상 28장 9절과 10절에는 다윗이 아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소원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다.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겠으나,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제 잘 생각하라. 주님께서 너를 택하사 성소로 삼을 집을 짓게 하셨으니, 힘을 내어 그 일을 행하라.”

주님께서는 다윗이 평생 꿈꿔왔던 성소 건축을 위해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나단의 도움과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에 곧바로 동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던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천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창조주께 이 큰 제물을 준비했다. 기브온에 머물던 중, 이 젊은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열왕기상 3:5).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대답을 했다. 솔로몬은 말하였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 주의 종에게 백성을 재판할 분별력을 주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큰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열왕기상 3:7-9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시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열왕기상 3:10, 12). 그의 이기심 없는 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영광도 네게 주었으니, 네 평생 동안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내 길을 따라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수명을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13, 14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나자,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언약궤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열왕기상 3:15).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 성전 건축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돌과 목재가 어떻게 준비되고 다듬어지며 제자리에 놓일 위치가 표시되었는지, 그리고 준비가 다 된 후에야 비로소 건축 현장으로 운반되었는지 기억합니다.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으며,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 혹은 철제 도구의 소리 없이도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6:7). 이 위대한 성전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준비되었지만, 건축 예정지로 옮겨졌을 때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얼마나 큰가! 우리는 결코 시간을 무심코 허비하다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갑자기 기적처럼 왕의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적합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준비의 때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적 성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자리를 위해 지금 바로 다듬어지고, 깎이고, 연마되며, 그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더 위대한 구조물을 예표했음을 깨닫습니다.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다듬어지고 수고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전서 3:9; 에베소서 2:10; 빌립보서 1:6; 2:12,13). 모든 조각,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동안 — 이 “비뚤어지고 굽은” 세상 한가운데서 — 준비가 완료되면, 그들은 상징적인 하늘 성전 안에서 제자리에 맞춰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15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는 큰 기쁨의 축하가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8:65, 66).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그리스도께서 완성되고 모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실 때 하늘과 땅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은 그 성전의 완성을 통해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는 마치 육적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던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19-22; 요한계시록 3:12; 21:22-26

## 오늘날

이 시점에서 현명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 시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전히, 자신에게서 인간의 본래 모습을 어느 정도 닮은 이들을 향해 초청의 손길을 내미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본래의 자질을 지닌 이들은 솔로몬이나 과거 시대의 다른 고귀한 인물들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초청과 봉사에 응답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분의 독생자의 발자취를 따르며 삶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부르심의 사역과 그에 수반되는 연마와 다듬음, 형상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로 하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제시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28,29

이 성경 구절은 미리 정해진 한 무리, 즉 교회가 아버지의 형상이자 본보기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중 누구도 이 생애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이 영광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2; 히브리서 5:4

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초대를 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여 그들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그분의 은혜로운 공급 덕분에 우리가 이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기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대속 희생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정하여, 비록 우리 자신에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1:10; 로마서 12:1; 에베소서 1:5-7

이 중요한 단계를 밟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본을 닮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야 합니다(골로새서 3:2). 새로운 뜻과 새로운 마음은 성령의 열매와 은혜를 맺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닮기 위해서는 항상 이러한 성품적 자질을 개발하고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22,23; 베드로후서 1:5-7).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정서는 추구해야 하지만,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성하시는 영향력 아래에서 일생 동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일입니다.

주님과 진리, 그리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과 동정

어린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는 신음하는 피조물,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인 원수들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2:37-39; 요한복음 13:34,35; 누가복음 6:27,28

## 마음의 순종

잠언 4:23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일부가 될 권리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흙 그릇에 담긴 보물”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짐과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7). 그러나 아담, 솔로몬 왕,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누구에게 마음의 순종을 바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나 진리, 혹은 형제들을 섬기도록 강요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 성전 안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며, 이는 오직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9; 고린도후서 3:18

아마도 우리는 신실한 자로서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일의 주인으로 삼으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21)라는 말씀을 듣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그 경험이 어떠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휘장 너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모양에 연합되었으면, 부활의 모양에도 연합될 것입니다.” (로마서 6:5).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즉 정확한 본보기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며, “선한 일을 인내로 계속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주님이시자 머리아신 분과 같이 만들어질

것이며, 모두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2:7

“명백한 형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고스”로서 인간이 되기 전 천사로서의 상태에서도 아버지의 형상을 닮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의 성품은 언제나 아버지의 성품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제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히 띠고 계시며, 신성한 본성을 나누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 빌립보서 2:8,9; 골로새서 1:15

또한 우리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실 때[그리스어: 드러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를 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그분 안에 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1-3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보다 위대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0:29; 14:28; 고린도전서 15:24-28).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섬김으로 인해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대가를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순종하는 데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예수님의 신부이자 그분의 몸인 교회의 “부름 받고, 택함 받고,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14; 19:7,8; 21:2; 고린도전서 12:12,27). 이들은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신실하다면,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0).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지으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흠으로 된 자[아담]의 형상을 입었듯이, 하늘에 속한  
자[하나님의 형상]의 형상도 입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9, 10; 고린도전서 15:49